

경험한 이슈 중, 기억할만한 것들을 정리한 문서입니다.

1. 락프리 자료구조에서 Hazard Pointer가 필요한 이유

- 락프리는 기본적으로 CAS를 통해 구현된다.
- CAS는 보통 CAS(Now, LocalNow, Next)와 같이, Now와 LocalNow가 같다면 Now를 Next로 이동시키는 로직이다.
- 멀티스레드 프로그램에서는 스레드 A가 CAS를 시도하는 순간, 컨텍스트 스위칭으로 인해 스레드 B가, 스레드 A가 접근하려고 하는 노드를 제거할 수 있다.
- 즉, 순식간에 LocalNow는 동적 해제된 메모리가 되는 것이다.
- 동적 해제된 메모리에 접근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 보통은 힙 침범으로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락프리 자료구조만 접근하는 메모리가 필요하다. 이게 Hazard Pointer다.
- 직접 제작한 LockFree-Queue / LockFree-Stack은 메모리풀을 사용했다.

2. CAS의 문제 (ABA Problem)

- Hazard Pointer를 넣은 LockFree-Queue 완성 후, 테스트를 돌려봤다.

테스트 상황

- 1) main스레드에서 Queue에 UINT64를 인자로 가지는 Class 데이터를 4개 인큐 후, 스레드 2개 생성
- 2) 각 스레드는 [디큐 -> 디큐 -> 인큐 -> 인큐] 를 루프돌며, 중간에 클래스 내부의 UINT64값을 ++, --시키며 값 확인. 다르면 Crash를 발생시킨다.

- 테스트 결과, Crash가 발생한다.
- 확인해보니, 정말 동일한 데이터에 2개의 스레드가 접근했다. 즉, Deq가 되면 안되는 상황에 Deq가 발생한 것이다.
- 수업시간에 배운 ABA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ABA 문제

- Head/Tail/Top 등이 내부 리스트 외부의 메모리를 가리키는 문제
- 스레드 A가 디큐에서 CAS를 통과하려고 하는 찰나에 스레드 B와 C가 디큐/인큐를 반복한다면 LocalNext가 메모리풀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한다.
- 그 시점에 스레드 A가 깨어나서 아까 하려던 CAS를 통과하면 Head는 메모리풀에 있는 HeadNext를 가리킨다.

- 파악만 문제는 일반적인 CAS로는 노드의 유니크함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
- 포인터 외의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Unique Count 값을 추가했다.
- Unique Count라는 개념은, 네트워크 모듈이나 이전에 만들었던 라이브러리에서도 사용했기 때문에 쉽게 떠올릴 수 있었다.

Unique Count

- 디큐/인큐를 성공할 때 마다 1씩 증가되는 값.
- CAS 시 해당 값도 같이 확인해 head와 localhead가 정말로 동일한지 한번 더 검증한다.

- 일반 CAS는 InterlockedCompareExchnage64를 사용하는데, 이걸로는 head와 Unique Count를 한번에 비교할 수 없었다. 이 함수는 8바이트만 비교/교환이 가능하다.
- MSDN을 보다가 InterlockedCompareExchnage64 페이지의 연관 문서로 InterlockedCompareExchnage128을 찾았다.
- 설명을 보니, 16바이트의 데이터를 CAS하는 함수다.
- 이걸로 일단 ABA 문제는 막았다.

3. Double CAS의 주의점

- Double CAS코드에서 메모리 침범이 발생했다.
- 처음엔 128이 잘못된 줄 알고 별짓 다 해봤는데, 문제는 메모리 정렬 때문이었다.
- 참고로 MSDN에 아주 자세히 적혀있다. 이걸 못 본 내 자신을 원망했다.

The parameters for this function must be aligned on a 16-byte boundary; otherwise, the function will behave unpredictably on x64 systems. See `_aligned_malloc`.

- 즉, 16바이트(128bit)로 정렬된 메모리를 사용하라는 것이다.
- 잊어버리지 않게 메모리 정렬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둔다.

메모리 정렬

- 기본적으로 CPU는 word단위(64비트 아키텍처는 8바이트)로 처리한다.
- 레지스터에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ALU가 처리하는 단위도 word 이다.
- 때문에, 데이터는 8바이트(64비트 기준) 경계로 메모리가 할당된다. 그래야 메모리에 접근할 때, 한 번의 작업으로 Read/Write가 가능하다.
- alignas() 등을 이용해 메모리 정렬을 변경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문제는 단순히 메모리 정렬의 문제가 아니었다. 복합적인 문제였다. 문제 내용을 정리해본다.

- 먼저 인터락 함수의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매우 중요한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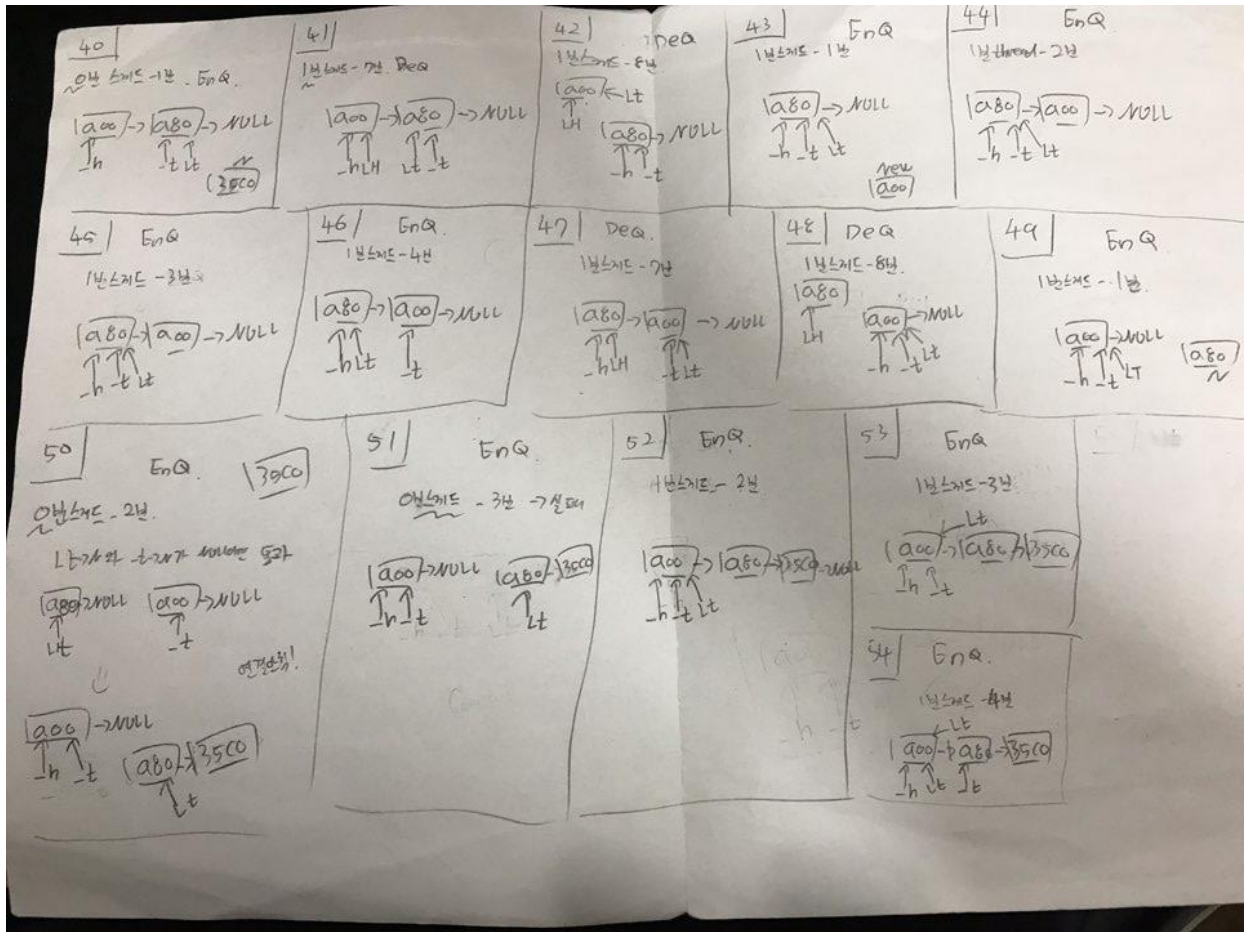
인터락 함수의 특징

- 인자로 받은 변수가 존재하는, 실제 물리 메모리에 접근한다. (가상 메모리 아님!)
- 예를 들어, 인터락 32함수는 인자의 시작 주소부터 4바이트의 물리 메모리 영역에 접근한다.
- 인터락 64함수는 인자로부터 8바이트의 물리 메모리 영역에 접근한다.

- 즉, 잘못 쓰면 메모리 침범이 일어날 수 있다.
- 가상메모리 측면에서도 생각해보자.
- int Array[2]는 가상메모리 주소상에는 연속된 위치에 존재한다. (예를 들어 0x04, 0x08)
- 하지만, 이건 가상 메모리의 입장이며 실제 물리 메모리 상에는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0x04, 0x40) 이걸 MMU가 연속된 것처럼 느끼게 해줄 뿐이다.
- 만약 InterlockedCompareExchnage128의 인자로 0x04를 넘길 경우, 0x04부터 128비트의 물리 메모리에 접근한다.
- 이 때, 8바이트는 0x04로부터 8바이트에 있지만, 나머지 8바이트가 물리메모리에 연속적으로 있다는 확신은 없다.
- 위 문제들 때문에 Double CAS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었다.
- 앞으로 MSDN을 잘 읽자...

4. Head의 Next가 null이 되는 상황

- 직접 제작한 LockFree-Queue는, Head가 가리키는 것은 Dummy이며, Head의 Next가 실제 데이터이다.
- 이는 Head와 Tail이 Null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Head가 가리키는 데이터를 디큐할 경우, 데이터가 0개가 되는 순간 Head와 Tail은 null이다.)
- 때문에 Dequeue함수에서는 Head의 Next가 null인지 체크하고 null이라면 Crash가 나도록 코드를 작성했다.
- Double CAS를 하기 전에 인터락으로 내부에 노드가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Head의 Next가 null이 되는 상황은 없다고 판단했다.
- 하지만 그 상황이 발생했다.
- 노드의 수가 적을 때 인큐/디큐를 반복하면 자주 발생했다.
- 상황을 추적하기 위해, 락프리 자료구조 내부에 리스트를 두고, 인큐/디큐하는 모든 노드의 주소를 보관하며 메모리 로깅을 시작했다.
- 얻은 덤프파일을 종이에 그려가며 추적해봤다.



- 정리하자면
 1. 0번 스레드가 Enq를 시도하는 중 컨텍스트 스위칭
 2. 1번 스레드가 디큐->인큐->디큐 성공 후, Enq를 시도하는 중 컨텍스트 스위칭
 3. 다시 0번 스레드가 Enq를 성공한 후 Tail을 이동시키지 못하면 Head의 Next는 Null이된다.
 4. 이 때 0번 스레드가 디큐를 시도하면 Head의 next가 null이기 때문에 Crash가 발생한다.
- 위 상황에서, Head의 Next가 null인 상황은 언젠가 해소된다. 인큐 중 순식간에 다른 스레드가 디큐를 시도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 강사님과 이야기한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하고 Head의 Next가 null일 경우 continue를 하는 걸로 이슈는 종결되었다.

5. 락프리와 SRWLOCK 성능 비교

- Slim Read/Write LOCK이라는게 있다.
- 가벼운 락인데, Shared모드와 Exclusive 모드가 제공된다.
- 잊어버리기 전에 SRWLOCK에 대해 정리한다.

SRWLOCK

- 락 소유주를 체크하지 않는다. (셀프 데드락 위험)
- 객체 크기가 8바이트 포인터로 굉장히 작다.
- 임계영역 접근 시, bit 값을 변경하는게 끝이다. (물론, 누가 임계영역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락과 마찬가지로 커널모드 전환 후 Event를 기다리는 형식이다)
- 전체적으로 굉장히 가볍고 빠르다.

- 그렇다면, 정말 SRWLOCK는 락프리보다 빠를까?

Profiling.txt - 메모장
파일(F) 편집(E) 서식(O) 보기(V) 도움말

ThreadID	Name	Average	Min	Max	Call
8740	Interlock	64503397.700µs	64503397.700µs	64503397.700µs	2
8740	srwlock	10501700.200µs	10501700.200µs	10501700.200µs	2

- SRWLOCK과 인터락 비교 결과이다.
- 스레드 50개가 1천만번 InterlockedIncrement를 한 것과 SRWLOCK을 걸고 값을 ++한 것이다.
- SRWLOCK이 월등하게 빠르다. 정확하게 빠른 원인이 궁금해 좀 더 고민해봤다.
- 이것 저것 고민하고 자료를 찾다가 나온 결론은 **캐시라인** 때문이다.

캐시라인

- RAM에서 캐시로 값을 가져오거나 값을 내보낼 때, 캐시라인 크기로 가져오고 보낸다. 이는 공간지역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 1바이트만 Read/Write해도 캐시라인 크기로 읽고 쓴다.
- 최근 Intel CPU의 L1/L2/L3 캐시라인은 64바이트이다.

- 그리고 캐시에는, 캐시무효화라는 중요한 규칙이 있는데 이것도 기억해둬야 한다.

캐시 무효화

- 캐시는 일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cache coherency)
- 만약, 코어A/B의 캐시가 각각 int q의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코어 A가 q의 값을 변조할 경우, 코어 B에게 해당 값이 있는 캐시라인이 틀어졌다는 내용이 전달된다. (MESI 프로토콜)
- 이후, 코어 B가 q에 접근하려고 할 때, Cache miss가 발생하며, RAM에서 새로 데이터를 캐싱한다.

- 이걸 기억해두고 락프리를 분석해보자.
- 일단 락프리의 CAS는 인터락이며, 인터락도 결국 값을 변조하는 것이다.
- 때문에 CAS 성공 시 캐시 무효화가 발생한다. 이 상태에서 다른 코어의 스레드가 접근하지 않는다면 메모리에서 캐시로 데이터를 캐싱하는 작업은 발생하지 않는다.
- 하지만, 락프리는 기본적으로 n개의 스레드가 경쟁해서 최소 1명이 승리하는 구조이다. 그리고 **패배한 스레드들은 즉시 다시 CAS를 시도한다.**
- 때문에, 매 번 캐시 라인을 갱신하는 오버헤드가 발생한다.
- 반면, SRWLOCK은 내가 건 락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다른 스레드가 공유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
- 락을 건 후 값을 1억번 변경해도 캐시무효화가 발생하지 않는다.
- 즉, 내가 락을 풀고 다른 스레드가 그 공유자원에 접근했을 때만, 캐시 무효화가 발생한다.
- 결론적으로 SRWLOCK은 락프리보다 캐시 무효화 발생 수가 적다. 때문에 락프리보다 빨라질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가능성이 있다고 기억해두자)
-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그럼, 모든 락이 락프리보다 빨라질 수 있는가?
- 그 예로, Critical Section도 락프리보다 빠를까?

Profiling_크리티컬2.txt - 메모장
파일(F) 편집(E) 서식(O) 보기(V) 도움말

ThreadID	Name	Average	Min	Max	Call
10360	Interlock	62786239.000µs	62786239.000µs	62786239.000µs	2
10360	Critical	77492227.400µs	77492227.400µs	77492227.400µs	2

- Critical Section과 인터락 비교 결과이다. (SRW와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 결과는 인터락이 더 빠르다.
- Critical Section은 SRWLOCK보다 하는 작업이 많고 무겁다.
- 때문에 Critical Section은, 인터락보다 느려질 수 있다.
- 주의해야 할 점은 락프리는 그냥 락이 없다는 것뿐 빠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 상황에 따라 잘 사용해야 한다. 실제로 위 결과처럼 SRWLOCK이 훨씬 빠르다.

6. SRWLOCK이 빠른 이유는 Pause?

- 수업 중, 어셈 명령어 Pause에 대해 알게 됐다. SRWLOCK이 빠른 이유 중 하나라고 한다.

Pause

- 하드웨어 영역의 어셈 명령어. OS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명령어이다.
- 하이퍼 스레딩에서만 적용. 아니라면 NOP로 취급된다.
- 잠시 스레드를 쉬도록 해, 같은 코어에 접근하는 다른 스레드가 일을 더 많이 하도록 한다.
- 일정 횟수 루프를 돌면서 Pause를 실행한다.

- 디스어셈블리로 확인해봤다.

```

디스어셈블리 - x pch.h Test.cpp
주소(A): RtlAcquireSRWLockExclusive(void)
보기 옵션
00007FF9348019CC mov     rax,rbx
00007FF9348019CF lock cmpxchg qword ptr [rdi],rdx
00007FF9348019D4 mov     rbx,rax
00007FF9348019D7 je      RtlAcquireSRWLockExclusive+0EEh (07FF9348019EEh)
00007FF9348019D9 lea     rcx,[rsp+70h]
00007FF9348019DE call    RtlBackoff (07FF9348025D0h)
00007FF9348019E3 prefetchw [rdi]
00007FF9348019E6 mov     rbx,qword ptr [rdi]
00007FF9348019E9 jmp     RtlAcquireSRWLockExclusive+39h (07FF934801939h)
00007FF9348019EE test    cl,cl
00007FF9348019F0 jne     RtlAcquireSRWLockExclusive+13Fh (07FF934801A3Fh)
00007FF9348019F2 cmp     word ptr [7FFE036Ah],1
00007FF9348019FB jbe     RtlAcquireSRWLockExclusive+117h (07FF934801A17h)
00007FF9348019FD mov     eax,dword ptr [SRWLockSpinCount (07FF934913E00h)]
00007FF934801A03 test    eax,eax
00007FF934801A05 je      RtlAcquireSRWLockExclusive+117h (07FF934801A17h)
00007FF934801A07 mov     ecx,dword ptr [rsp+44h]
00007FF934801A0B test    cl,2
00007FF934801A0E je      RtlAcquireSRWLockExclusive+117h (07FF934801A17h)
00007FF934801A10 pause
00007FF934801A12 add     eax,0FFFFFFFFh
00007FF934801A15 jne     RtlAcquireSRWLockExclusive+107h (07FF934801A07h)
00007FF934801A17 lea     rax,[rsp+44h]
00007FF934801A1C lock btr  dword ptr [rax],1
00007FF934801A21 jae     RtlAcquireSRWLockExclusive+39h (07FF934801939h)
00007FF934801A27 xor     edx,edx
00007FF934801A29 mov     rcx,rdi
00007FF934801A2C call    NtWaitForAlertByThreadId (07FF934852F70h)
00007FF934801A31 mov     eax,dword ptr [rsp+44h]
00007FF934801A35 test    al,4
00007FF934801A37 jne     RtlAcquireSRWLockExclusive+39h (07FF934801939h)
00007FF934801A3D jmp     RtlAcquireSRWLockExclusive+127h (07FF934801A27h)
00007FF934801A3F mov     rcx,rdi
00007FF934801A42 call    RtlpOptimizeSRWLockList (07FF934828D54h)
00007FF934801A47 jmp     RtlAcquireSRWLockExclusive+0F2h (07FF9348019F2h)
00007FF934801A49 mov     edx,0C000004Bh
00007FF934801A4E mov     rcx,0FFFFFFFFFFFFFFFFh
00007FF934801A55 call    NtTerminateProcess (07FF93484FBE0h)

```

이름	값	형식
eax	1024	unsigned int

- 실제로 SRWLOCK에서는 Pause를 사용 중이며 1024번 루프를 돈다.
- 시나리오를 만들어보면, 하이퍼 스레딩에서 같은 코어를 사용중인 스레드 A/B 중 스레드 A가 임계영역에 접근한 상태에서 스레드 B가 같은 임계영역에 접근하길 시도할 경우, 스레드 B가 Pause를 돌면서 쉬어준다면 스레드 A는 더 빨리 작업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스레드 B가 임계영역에 들어가는 시간도 빨라질 것이다.
- 그럼 Critical Section은 Pause를 안쓰는까?

디스어셈블리 pch.h Test.cpp

주소(A):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void)

보기 옵션

```

00007FF9347B9B1B  mov     rdi,qword ptr [rbx+20h]
00007FF9347B9B1F  mov     rax,rdi
00007FF9347B9B22  and     edi,0FFFFFFh
00007FF9347B9B28  and     eax,2000000h
00007FF9347B9B2D  test    rax,rax
00007FF9347B9B30  setne   sil
00007FF9347B9B34  xor     r10b,r10b
00007FF9347B9B37  mov     al,1
00007FF9347B9B39  xor     bpl,bpl
00007FF9347B9B3C  mov     r14d,1
00007FF9347B9B42  test    al,al
00007FF9347B9B44  j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8Fh (07FF9347B9B6Fh)
00007FF9347B9B46  test    bpl,bpl
00007FF9347B9B49  mov     r8d,3
00007FF9347B9B4F  mov     rdx,rdi
00007FF9347B9B52  cmov     r8d,r14d
00007FF9347B9B56  test    rdi,rdi
00007FF9347B9B59  j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8Fh (07FF9347B9B6Fh)
00007FF9347B9B5B  nop     dword ptr [rax+rax]
00007FF9347B9B60  mov     eax,dword ptr [rbx+8]
00007FF9347B9B63  test    r14b,al
00007FF9347B9B66  jn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0F7h (07FF9347B9BD7h)
00007FF9347B9B68  pause
00007FF9347B9B6A  sub     rdx,r14
00007FF9347B9B6D  jn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80h (07FF9347B9B60h)
00007FF9347B9B6F  mov     edx,dword ptr [rbx+8]
00007FF9347B9B72  xor     r9b,r9b
00007FF9347B9B75  test    bpl,bpl
00007FF9347B9B78  jn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170h (07FF9347B9C50h)
00007FF9347B9B7E  test    r14b,dl
00007FF9347B9B81  jn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1CCh (07FF9347B9CACH)
00007FF9347B9B87  lea     r8d,[rdx-4]
00007FF9347B9B8B  test    r8b,2
00007FF9347B9B8F  j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19Ah (07FF9347B9C7Ah)
00007FF9347B9B95  cmp     r8d,edx
00007FF9347B9B98  je      RtlpEnterCriticalSectionContended+0D4h (07FF9347B9BB4h)
00007FF9347B9B9A  mov     eax,edx
00007FF9347B9B9C  lock cmpxchg dword ptr [rbx+8],r8d

```

조사식 1

이름	값	형식
rdx	2000	unsigned __int64

- Critical Section도 사용 중이다. 애는 2000번 루프를 돌면서 Pause를 한다.
- 결국, Critical Section 과 SRWLOCK 의 차이점은 기존에 알고 있던 [락 객체 크기 차이, 락을 걸 시 비트 값만 변경] 이 두개인 듯 하다.

7. ERROR_SEM_TIMEOUT

- 더미 테스트 중, 서버가 더미를 끊는 상황이 발생했다.
- 하트비트 기능도 없고, 더미도 접속을 끊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면 안되는 상황이었다.
- 끊길 때 더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서버에서 상태값을 부여했다. 예를 들어, 로그인 성공하면 0, 패킷을 보냈으면 1로 설정하는 등.. 이다
- 이후, OnClientLeave 에서 브레이크 포인트를 잡고 추적해봤다.
- 로그인 중에 끊긴 유저도 있었고 패킷을 보낸 후 끊긴 유저도 있었다.
- 위 내용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해, 네트워크 모듈의 Worker 스레드의 GQCS 를 추적해봤다. GQCS 를 잘못쓰는건가 싶었기 때문이다.
- GQCS 가 리턴 된 후 GetLastError 가 0 이 아니면 크래시가 나도록 했다.
- 크래시가 발생했다. 그리고 에러는 121 이었다.
- 121 에러가 뭔가 찾아보니 'ERROR_SEM_TIMEOUT'이며, 대충 네트워크 단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 좀 더 자세히 찾아보다가, 마이크로 소프트의 공식 답변을 찾았다.
<https://blogs.msdn.microsoft.com/oldnewthing/20140717-00/?p=483>
- 요약하면 TCP에서 retransmission 횟수만큼 재전송을 했는데도 실패하면 이 에러가 발생한다고 한다.
- 테스트 환경 상, 더미가 있는 PC와 서버가 있는 PC는 스위치나 라우터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되어있는데 과한 통신으로 인한 패킷 드랍으로 에러가 발생한 듯 하다.
- MSDN은 항상 옳지만..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테스트를 해봤다.
- 클라가 서버에 접속하면, 서버를 break포인트로 잡아두고 클라이언트의 랜선을 뽑은 후 서버에서 클라로 패킷을 보내봤다.
- 예상대로라면, 5회(기본 재전송 횟수) 재전송 후 121에러가 발생해야 하는데, 정말로 그 에러가 발생했다.
- WireShark로 확인해보니, Syn패킷을 5회 보낸 후 연결이 끊기는게 확인됐다.
- retransmission 횟수를 수정도 해봤다.
- 윈도우에서는 regedit을 열고 아래 경로에서 TcpMaxDataRetransmissions를 추가후 수정하면 가능했다.
HKEY_LOCAL_MACHINE\Software\CurrentControlSet\Services\Tcpip\Parameters
- 재전송 횟수가 늘어나면 121 에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10 회로 늘린 후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존에는 10 분만에 발생했다면 수정 후에는 30 분만에 발생할 뿐 여전히 발생은 했다.

- 강사님과 논의 결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인지하고 더미의 액션 Delay 와 connect 클라이언트 수를 조절하는 걸로 이슈는 종결됐다.

Apache/PHP/MySQL 셋팅

1. 아파치가 재시작되는 문제

- Dummy에서 아파치를 통해 PHP를 거쳐 DB에 UPDATE/SELEC를 테스트 중.
- 갑자기 Dummy가 죽는 상황이 발생했다.
- Dummy쪽 로그를 확인해보니, HTTP 통신 중, 아파치가 먼저 접속을 끊어 Dummy가 Crash를 내면서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
- 아파치 로그를 보니 정말 Dummy가 죽은 그 시간에 아파치가 재시작되었다.
- 오류 코드를 보니 c0000374(힙 침범)이었다.
- 혹시 몰라 이벤트 뷰어를 보니 역시 httpd.exe가 c0000374오류코드로 종료되었다고 남아있었다.
- 구글링 중,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비슷한 문제를 확인했다.
- 답변에 링크가 있어서 들어가보니, PHP 공식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 내용은 아파치 재시작 버그가 수정되었으니 PHP버전 업그레이드 하라는 내용이었다.
- PHP 버전을 7.2 스레드 세이프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하니 깔끔하게 해결되었다.

2. 아파치의 메모리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

- Dummy에서 아파치를 통해 PHP를 거쳐 DB에 UPDATE/SELECT 테스트 중, 더미쪽에 TPS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는게 눈에 보였다.
- 서버의 작업관리자를 보니, 메모리가 90% 사용 중이었다.
- 메모리가 계속 늘어나, 페이지 폴트가 발생해 전체적으로 성능이 내려간 상황인 듯 하다.
- 누가 메모리를 많이 쓰나 봤더니 아파치가 거의 80%를 쓰고 있었다.
- 이번에도 스택 오버플로우의 힘을 빌렸다.
- 비슷한 질문을 찾았는데, httpd-mpm 설정파일의 MaxConnectionsPerChild를 건드리라는 것이었다.
- MaxConnectionsPerChild는 아파치에 연결 가능한 최대 수로, 이 이상 커넥트되면 아파치 프로세스를 kill했다가 다시 살린다.
- 답변에 더 자세히 설명은 없었지만, 커넥트 할 때 마다 쌓이는 정보가 있는데 그게 메모리를 차지했던걸로 추측된다.
- MaxConnectionsPerChild를 100만으로 수정해, 100만명마다 프로세스를 강제로 kill하는걸로 이슈는 종결됐다.

3. 포트 부족 문제

- 더미테스트를 하는데, php에서 mysql connect나 fsockopen 시 에러가 발생했다.
- 에러 메시지는 다양한데, 결론은 어쨌든 실패했다는 것이다.
- 이것 저것 확인하다가 netstat -an을 보니, 사용중인 포트가 끝없이 나타났다.
- 더미가 과하게 접속을 시도함으로써 포트 고갈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단, 동적포트를 확장시켰다.

동적 포트

- 포트에는 알려진 포트, 등록된 포트, 동적/사설포트가 존재한다.
- 이 중 동적포트는 동적으로 할당되는 포트로, 사용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포트이다.
-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connect를 하면 동적포트 중 하나가 자동으로 할당된다.
- 동적/사설포트는 49152~65535번이며, 임의로 이 포트를 확장할 수 있다.

- 윈도우에서 동적포트 확인 : cmd에 netsh int ipv4 show dynamicportrange tcp
- 윈도우에서 동적포트 확장 : cmd에 netsh int ipv4 set dynamicportrange tcp start=32767 num=32768 store=persistent 숫자부분을 잘 조절하면 된다.
- 다시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래도 여전히 동일한 문제가 발생했다.
- 다시 한번 netstat -an을 열어봤다. 여전히 포트가 쌓여있다.
- 주의깊게 보니 대부분의 포트들이 TIME_WAIT 상태였다.

TIME_WAIT 상태

- 포트의 상태 중 하나로 연결 종료된 포트에게 할당되는 상태이다.
- 연결 종료를 요청한 쪽에 남으며, 일정 시간 후에 사라진다.
- 존재 이유 : 만약, 연결 종료 후 포트가 바로 재사용된다면 기존에 네트워크 혼잡 때문에 오지 못했던 패킷이 정상적이지 못한 유저에게 전송될 수 있다.

- 포트 수가 아무리 많아도 TIME_WAIT으로 포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똑같이 포트 고갈 현상이 발생한 것.
- TIME_WAIT 시간을 낮춘 후 테스트하니 정상적으로 작동했다.

4. MySQL이 CPU를 100% 점유하는 상황

- Dummy에서 아파치를 통해 PHP를 거쳐 DB에 UPDATE 테스트 중.
- TPS가 너무 안나오는 상황이었다. (목표는 500TPS인데 잘나와야 100TPS였음)
- 작업 관리자 보니, MySQL의 CPU 점유율이 거의 100%였다. MySQL에서 뭔가 과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다.
- 처음엔 Slave에게 보내는 Binary log가 너무 과한가 싶어 sync_binlog설정을 1에서 100으로 수정해봤다.

Sync_binlog

- Slave로 바이너리 로그를 전송하는 시점을 설정한다.
- 예를 들어, 1이면 쿼리 1개마다 slave로에게 바로 바이너리 로그를 전송한다.
- Replication에 사용되는 옵션이다.

- 수정 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여전히 많이 부족했다
- MySQL 공식 홈페이지를 검색하다가 innodb_flush_log_at_trx_commit라는 설정을 찾았다.

innodb_flush_log_at_trx_commit

- 바이너리 로그를 디스크에 저장하는 시점을 설정. My.ini에서 설정 가능
- 0: 초당 1회씩 트랜잭션 로그 파일(innodb_log_file)에 기록 (1초마다 디스크 기록 및 커밋)
- 1: 트랜잭션 커밋 시 로그 파일과 데이터 파일에 기록 (새로 커밋될 때 마다 디스크에 기록 및 커밋)
- 2: 트랜잭션 커밋 시 로그 파일에만 기록, 매초 데이터 파일에 기록 (새로 커밋되면 즉시 커밋. 1초가 되면 디스크 기록)

- 1이 기본 값이었는데, 이는 UPDATE 마다 디스크와 I/O작업이 있었던 것....
- 해당 값을 0으로 변경한 후에는 CPU 점유율도 낮아지고 TPS도 올라갔다.
- MySQL의 로그에 대해 궁금해져, 좀 더 찾아보니 로그를 정기적으로 삭제하는 기능도 있었다. 역시 my.ini에서 설정할 수 있다.

binlog_expire_logs_seconds

- 이진 로그 생존 시간. 초 단위. 이 시간이 지난 로그는 삭제.
- 예를 들어, 이 값을 3600으로 설정하면 로그는 1시간마다 삭제된다.

max_binlog_size

- 로그 파일의 최대 크기. 이 크기가 되면 새로운 로그 파일을 생성한다.
- 1G, 512M과 같이 표시한다.

- 그리고, 시간이 됐다고 바로 삭제하는게 아니라 기존의 바이너리 로그가 가득 차서 새로운 이진로그를 생성할 때 시간이 지난 파일을 체크해 삭제한다.
- 예를 들어, 파일 A가 binlog_expire_logs_seconds만큼 시간이 지나 삭제 대상이 되면, 즉시 삭제하는게 아니라 현재 쓰고있는 이진 로그 파일의 Size가 max_binlog_size가 될 경우, 새로운 로그파일을 생성하면서, 파일 A가 삭제된다.

5. PHP의 지속 연결(Persistent connect)

- Dummy에서 아파치를 통해 PHP를 거쳐 DB에 UPDATE/SELECT를 하는 중.
-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조건은 각각 TPS 1000이었다.
- 어디가 느린지 찾기 위해, mysql connect / mysql query 의심되는 부분을 프로파일링 했다. (직접 제작한 PHP 프로파일러 사용)
- 확인해보니 mysql query는 0.001초 단위인데 connect가 평균 0.01에서 최대 0.1초까지 걸렸다.
- MySQL Connect는 PHP의 영역이니, PHP의 Mysql connect 관련 내용을 찾아보는 중 PHP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속연결이라는 것을 찾았다.

PHP의 지속연결

- 보통, TCP 통신은 Connect/Disconnect의 부하가 심하다. (3way handshake/4way handshake)
- 지속연결은 연결을 유지해 Connect와 Disconnect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방법.
- mysqli_connect('p:'. \$db_host, ...) 처럼 'p'를 붙이면 지속연결로 연결된다.

- 이걸 적용하니 일단 TPS가 850까지 올라갔다.
- 이후 OPcache라는 것을 찾아 적용했다. 그러니 TPS가 1300까지 올라갔다.

6. 네트워크 과부하

- 1U에 배틀,채팅,매칭 / 다른 1U에 더미,아파치 상태에서 1U에 배틀,채팅,매칭,아파치 / 다른 1U에 더미로 변경했다.
- 아파치에 더 빠르게 접근해 배틀서버의 DB Write TPS를 올리기 위함이다.
- 근데, 이렇게 옮기고 나니 DB에 UPDATE 하다가 Lost connecting to MySQL server during query...(2013) 라는 에러가 발생했다.
- 전혀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라, 일단 각 서버를 지켜봤다. 혹시 몰라 성능모니터도 켜 놔다.
- 특이사항이, 성능모니터에서 1U 2개 다 네트워크 송수신 바이트가 계속 올라갔다.
- 그러다 어느 순간 Lost connecting to MySQL server during query...(2013)에러가 발생했다.
- 더미가 부하테스트도 겸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송수신이 과해져 발생한 문제인 듯 하다
- 그 중에서도 채팅이 가장 과했다.
- 더미 1명당 1초에 10번, 3000명이 들어오는 중이기 때문에 약 1초에 3만TPS를 Recv 하며, 방 안의 다른 유저들에게 브로드 캐스팅(한 방에 5명)하면 20만TPS를 Send하는 중이었다.
- [배틀, 매칭 아파치 / 더미, 채팅]로 변경해, 더미와 채팅을 같이 두고 이 둘은 루프백으로 통신하게 했다.
- 변경 후 정상적으로 작동했다.